

금융과 공동선에 관한

더블린 제안

THE DUBLIN PROPOSALS ON FINANCE AND THE COMMON GOOD

“경제와 금융은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그 관리자들이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자체로는 좋은 수단들이 해로운 수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수단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흐려진 분별력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은 수단이 아니라 개인들과 그들의 도덕적 양심, 개인적 사회적 책임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Caritas in Veritate) 36항)

“금융개혁은 많은 윤리적 고려사항들에 노출되어 있어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접근방법 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한편으로는 각각의 경우에 고려해야 할 자세한 사항들을 물론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결단력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를 촉구합니다. 돈은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지 인간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교황은 모든 사람을 부자든 가난한 이든 똑같이 사랑하지만, 모든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존경하고 상태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촉구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그러움에 연대하여 경제와 금융이 인간존재에 우호적인 윤리적 접근법으로 돌아오기를 권고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 58항)

이들 인용문과 가톨릭 사회교리(CST, Catholic Social Teachings) 가르침에 자극되어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다른 요구들이 과연 실제적인 정책 제안들로 뒷받침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제기하고 해답을 강구하기 위해 교황청백주년선포기념재단 (CAPP, Fondazione Centesimus Annus – Pro Pontifice)은 은행인, 은행감독인, 금융경제인, 그리고 금융윤리전문인이 초청된 두 개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된 내용의 전체 요약은 재단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구성되었음에도 이 그룹은 몇 개의 실제적인 제안을 도출하는데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안들이 모두에게 수용되지 않았으며, 이 그룹이 합의를 도출했던 실제 적용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제약들을 모두 노출하려 했던 그 원인들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제안을 공표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켜, 금융 산업에 윤리적 채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을 때 좀 더 진지하게 이 제안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A. 일반적 고려사항

▷ 인격적인 인간존재에 봉사하기 위해 경제활동에는 윤리적인 고려사항이 요구됩니다. 시장은 신뢰에 기초한 윤리적 프레임워크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든지 가장 높은 댓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가난한 이들입니다. 비윤리적 행동 또한 가난한 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난한 이들이 부패의 댓가를 치르니다; 그들은 자주 경제적 보호주의에 피해를 보곤 합니다; 그들은 공공서비스의 비효율 댓가를 치르기도 하며 금융 비리의 결과로도 고통을 겪습니다.

▷ “금융개혁은 많은 윤리적 여러 사항들에 노출되어 있어 정치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접근방법 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한편으로는 각각의 경우에 고려해야 할 자세한 사항들은 물론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결단력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를 촉구합니다. 돈은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지 인간을 지배해서는 안됩니다! 교황은 모든 사람들 가난한 이든 똑같이 사랑하지만, 모든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존경하고 생태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도록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그러움에 연대하여 경제와 금융이 인간존재에 우호적인 윤리적 접근법으로 돌아 오기를 권고합니다.”

▷. 인격적인 인간존재에 봉사하기 위해 경제활동에는 윤리적인 고려사항이 요구됩니다. 시장은 신뢰에 기초한 윤리적 프레임워크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든지 가장 높은 댓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가난한 이들입니다.

비윤리적 행동 또한 가난한 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난한 이들이 부패의 댓가를 치릅니다: 그들은 자주 경제적 보호주의에 피해를 보곤 합니다, 그들은 공공서비스의 비효율 댓가를 치르기도 하며 금융 비리의 결과로도 고통을 겪습니다.

▷ 금융개혁을 위해서든 빈곤퇴치투쟁이 되었든, 아래로부터 상향접근법은 지역단위 그룹에서 출발하여 당사자들이 주도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합니다. 아래로부터 상향접근법은 항상 복잡하고 때로는 지엽적인 문제로 묻히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적 존엄과 공동선에 대한 관심, 보존성과 연대성과 같은 관리체계의 문화가 요구 됩니다; 이러한 모든 요구사항들은 가톨릭교회의 윤리나 사회교리 가르침과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사항들이 위주가 되는 거시 경제적 해법들은 일반적으로 위로부터 하향적 성격을 가지며, 그 분야는 교회가 특별히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체계의 문화와 관련된 해결책은 위로부터 하향식 그리고 아래로부터 상향식 모두가 필요하며 윤리적이고 사회적 성격을 가지므로 교회의 의무와 책임 안에서 잘 부합됩니다.

▷ 선진국에서의 논쟁은 미래불안과 자기 방어적 태도에 휩싸여 여러 가지 형태의 회의론자와 포퓰리즘의 경고와 위협에 휘말려서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교회의 본성 안에는 순전히 국가의 이익에 함몰된 소모적 논쟁을 잘 극복하고 세계 전체의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침에 따라 교회는 유럽 통합과정에서 특히 금융개혁을 위한 수단과 정책 영역에서 성취하였던 탁월한 단계조치들을 인지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홍보를 통해서 몇몇의 나쁜 금융관행과 그와 관련된 처벌들을 알리는 것은 금융분야와 공공 여론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평화3축' 프로세스가 요구되는데, 이를 통해 상대진영으로 하여금 약간씩 자기 입장을 양보하여 공동선이라는 목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전체의 금융적 경제적 웰빙이라는 관점에서 진솔 됨, 정직함, 투명성의 가치가 대중여론 캠페인이 아닌 실제 각자 사업 수행과 결합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B. 금융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관점

은행과 금융부분은 자신의 과거 역할과 금융위기의 비용에 관한 평결이 무엇이 되었던, 외부로부터 강화되는 규제와 내부로부터 밀어내는 개혁에 의해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에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을 요청하는 것은 미시 경제적이면서 거시경제적인 입장 모두에서 실제적인 수단과 과정에 이 관점이 심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스스로 표명한 윤리적 접근법을 금융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할 뿐 아니라 “포용적 금융”, 즉 “배제의 문화와 싸우는데 도움을 주는 따뜻한 금융” 아이디어에 요약되어있는 새로운 차원에 결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 회사 차원에서부터 시작 하십시오.

경제와 세계금융에서 윤리적 영역과 부문을 창조하여 이를 금융전체 속으로 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출발장소는 회사입니다. 거기에는 그 시발점에 인간이 있고 모든 거래 하나 하나의 종착점에, 그가 고객이든, 근로자든, 공급자든, 주주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때로는 기술과 규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항 하면서 경영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2. 분산된 대출방식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우십시오.

일자리가 경제적 포용성을 실천하는 기본수단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큰 가능성 실현은 소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적응력이 높고 창조적인 회사가 고용의 유연성을 크게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과 금융기관에서부터 대출기능을 분산하는 새로운 접근법, 그것이 지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든 규제 없는 신용 중개 방식이든, 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 접근법은 매우 복잡해서, 대출조건에 대한 더욱 조심스런 보증조건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며, 지나친 규제가 적용하면 차입자들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금융자원에 의존하며 위험에 빠집니다. 현존하는 은행과 신용대출 기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작거나 중간규모의 사업과 하나 또는 여럿의 중소기업들이 프로젝트를 재편해 갈 수 있도록 더욱 개별적이고 분산된 대출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3. 은행과 금융의 자기자본 수입에 합리적인 수준을 설정 하십시오

자기 자본에 지나치게 높은 기대수익률을 설정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금융부문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리스크에 기초한 합리적 수입목표를 설정하여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은행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하며, 경제전체의 수익률 수준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사기, 횡령, 부정부패, 인권 침해, 불법행위와 투쟁 하십시오

금융부문에 대한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더욱 포괄적이고 균형된 정보가 금융부문 자체에 의해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규제회피 행위; 즉 규제 격차를 이용한’ 이익추구행위에 기초한 관행은 자발적으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원이 사기횡령과 부정부패, 특히 돈세탁 행위를 확실하게 비난하는데 필요합니다.

5. 소비자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십시오

금융상품과 금융절차의 복잡성은 글로벌한 세계에서 투명성을 높여, 즉 금융기관들이 상품정보와 이용자보호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여, 금융소비자들이 관련된 리스크와 혜택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들을 분류하는 방식을 보호가 필요한 “소매고객”과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고객으로 꼭 구분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에 잘못된 구매가 이루어지는 위험을 피하도록 분류 방식을 재고해야 합니다.

6.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가계 부채 감축방안을 찾아내십시오

금융기관들은 “부채는 꼭 갚아야 한다”는 윤리원칙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레버리지가, 특히 가계의 경우에, 건전한 소비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면, 공정하고 형평기준에 맞는 부채 감축방안이 통상원칙이 되어, 신용제공자와 차입자가 리스크를 공동 분담하여 기울지 않는 경기장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모든 금융기관들 사이에 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7. 세대간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십시오

모든 금융기관 개혁 방안들은 은행 규제를 위한 합병과 퇴출절차를 포함해서 그 효과가 연금기금에 어떻게 미치는지 그리고 그 리스크가 현재 납입자, 연금 수령자,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어떻게 분담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8. 포용적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의 전문성을 활용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대규모 은행이 금융에 윤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확신하지만, 다른 이들은 더 작은 규모로 만들어야 금융 윤리가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두 경우 모두, 최근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은 리스크 축소 절차 과정에서 분산화를 추구하면 보고와 통제규칙을 잘 지키고, 한정된 금융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기술을 받아들이고 인적 자원에 훈련을 강화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성취는 놀라운 가치를 지닌 것이기에 배제의 문화를 몰아내는 투쟁에 도움이 되는 금융 부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C.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금융

9. 사회개발에 주력하는 금융기관을 지원 하십시오

강한 개발 지향을 가진 금융기관은 다양한 지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이 등장하는 기업들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들이 자본시장에 진출하는데 준비 시키고, 금융자원을 조직화 하여 소규모기업들이 자본 접근에 쉽게 참여하도록 촉진합니다.

10. 미소금융을 돕고 안내 하십시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선진국으로부터 참여하게 되면 고리대금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미소 금융을 통제 할 수 있으며, 미소신용의 개발을 도와 금융적 포용, 즉 따뜻한 금융을 뿌리 내리게 해서 다양한 범위의 공급 사업자들과 파트너 십을 맺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11. 따뜻한 금융의 포용성에 모바일 화폐를 사용하십시오

모바일 기기와 디지털 화폐의 광범위한 수용은 금융 배제를 싸워 이기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복지비 지급, 건강 보험 서비스, 현물지원 공급 망을 디지털로 전환하면 포용성을 높인데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되며, 개발 서비스를 통해 신용창출, 저축 증대, 그리고 보험 활용을 확대하는 기초작업을 하게 됩니다.

12. 자발적 연대 기금 (VSF)을 확대하여 금융거래와 자본이전의 부가비용을 줄입니다

나라와 나라사이, 심지어는 한 나라 안에서도 불평등의 정도가 심해지는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거래와 자본 이동에 국제 조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에 지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실제 적용이 어렵고 몰수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정부의 금고 속으로 사장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훌륭한 명분을 가진 독립적이고 세계 공통의 재발적 연대 기금(VGF)에 자발적으로 부과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D. 경제윤리, 동기부여 그리고 금융교육

13. 비윤리적인 행동에는 징벌적 대가를 치루게 만드십시오

금융 윤리를 제대로 세우려면 기업이 주도하는 내부 변화와 젊은이들에 대한 올바른 금융교육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규제 당국은 윤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 윤리적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비윤리적 행동 자체는 규제를 통해서 기업 내부 관리 체계를 통해서 다시는 허용이 안되는 징벌적 대가를 치루게 할 수 있습니다.

14. 정기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설정하십시오

경제적 인센티브와 보너스 정책은 조직의 장기 목표에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절대로 단기 이윤 성과와 연계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인센티브 구조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 성과와는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15. 비즈니스와 금융교육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십시오

비즈니스와 금융교육은 역사와 철학 관련 내용을 더 많이 포함하며, 명백하고 '중립적'이고 '가치관이 배제된' 사고방식만 전달되는 것을 피하고, 비판적 분석 역량을 양육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이로운 것이며 금융산업의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주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고 더 나은 보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6 자유로운 판단력을 키우도록 가르치십시오

금융기관들은 지원들이 그들의 관심과 우려를 자유롭게 얘기해도 보호되도록 필요한 구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17. 소비 고객 교육을 촉진 하십시오

장기적인 신뢰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 부문이 소비 고객 교육과 금융 지식 이해력을 높이는데 주도권을 갖도록 도와야 하는데, 여기에는 특히 가족의 안정성과 기록 보유 자원의 섬세한 금융관리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8. 새로운 미션과 동기부여 임무를 재창조 하십시오

금융부문에는 젊은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해 금융기관에서 일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은 새로운 임무를 다시 발견하고 미션 선언문을 다시 작성하지 않고는 쉽게 관리 될 수 없습니다. 이 미션 선언문에는 금융 부문이 더 이상 우리안에 갇혀 있거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전체 경제와 사회에 봉사하도록 스스로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금융입니다.
